

흉선종의 외과적 치료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김민호 장제환 김이중 김진 신동근 김공수

전북대학교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1985년 1월부터 1993년 8월까지 수술 치험한 12례의 흉선종환자를 분석하고 흉선종의 분류와 병기, 치료방법 및 결과에 대해 관찰 분석 하였다.

1. 환자의 성비는 남자 5명 여자 7명이었으며 연령은 6개월에서 61세까지로 평균 39세 였다.
2. 환자들의 내원시 주증상은 기침 3명, 흉부동통 및 불핀감 6명, 중증근 무력증 증상 2명이었다.
3. 흉선종 조직의 세포형은 상피세포형 7명, 혼합형 4명, 임파구형 1명이었고 세포형에 따른 Masaoka 임상적 병기는 상피세포형 stage 2.7, 혼합형 stage 2.5, 임파구형 stage 1.0 이었다.
4. Masaoka의 분류에 따른 임상적 병기(Clinical stage)는 Stage I 3명, Stage II 1명, Stage III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Stage IV 1명 있었다.
5. 수술방법은 흉선 전절제술 7명, 흉선 전절제술 및 폐엽절제술 그리고 상대정맥 절제 및 복원술을 시행한경우가 1명, 흉선 전절제술과 폐엽절제술 2명 이었다.
6. 수술전 방사선치료는 stage III 환자 1명에서 시행 하였고 수술후 방사선 치료는 Stage III 환자 중 2명과 Stage IV 환자 1명에서 4000 - 6000 rad. 의 방사선 치료를 실시하였다.
7. 술후 30일 이내의 조기사망은 없었고 수술후 6개월에서 94개월까지 추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8. 추적기간중 Masaoka 임상적 병기 Stage III 4명(상피세포형 3명, 혼합형 1명)과 Stage IV 1명(상피세포형)의 환자가 사망 하였다.